

우승컵에 입 맞추는 조코비치

등록 2022.07.11 08:02:16



[윌블던=AP/뉴스시스] 노바크 조코비치(3위·세르비아)가 10일(현지시간) 영국 윌블던의 올잉글랜드클럽에서 열린 윌블던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에서 우승, 트로피를 들고 입 맞추고 있다. 조코비치는 결승에서 닉 키리오스(40위·호주)를 3-1(4-6 6-3 6-4 7-6<3>)로 물리치고 4연패를 달성했다. 2022.07.11.